



우천 휴식 좋은데 ‘감’ 떨어질라

KIA, 후반기 4경기 취소... 정상 훈련 안되고 컨디션 조절 어려움
관중몰이도 비상... 시즌 최다관중 달성 ‘100만 목표’는 아슬아슬

KIA 타이거즈가 ‘무더위’에 이어 ‘비’라는 복병을 만났다. 올 시즌 유난했던 폭염이 광주를 덮치면서 고생을 했던 KIA 선수들이다. 입추가 지나고 더위가 한풀 꺾이기는 불지만 이번에는 예상을 할 수 없는 ‘비’가 이어지면서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에 비상이 걸렸다. 전반기 우천취소 경기는 5번. 하지만 후반기 한 달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kt 위즈(8월 2일·홈), 한화 이글스(8월 6일·원정), kt 위즈(8월 10일·원정), LG 트윈스(8월 13일·홈)와의 4경기가 비로 미뤄졌다. 그리고 이 중 세 경기는 훈련을 다 소화하고 경기 개시를 앞둔 시점에서 비가 내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 KIA 선수단

의 최고 관심사는 날씨다. 15일 NC 다이노스와 경기를 앞두고도 선수들은 날씨를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오락가락하는 비 때문에 훈련도 정상적으로 소화하지 못했다. 훈련 시간에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며칠 동안 이어진 비에 그라운드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타격 훈련을 진행해야 했다. 강행군 속 휴식은 반갑지만 ‘감’이 걱정이다. 김기태 감독은 15일 “쉬는 건 좋은데 감이 문제다. 지난 일요일 퇴근할 때 보니까 비나다가 실내에서 공을 치고 있더라. 선수들이 잘 조절해야 한다”며 “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한다. 머리 속으로 생각하면서 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비를 대하는 선수들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폴타임 활약을 하고 있는 최형우는 “비가 와서 쉬면 무조건 좋다”고 비를 반겼지만, 비 때문에 등판 기회가 줄어든 투수들은 “꾸준히 경기를 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다. 강행군 일정 속 휴식이 되어준 비를 반기기도했던 프런트 입장은 계속된 비에 조금 달라졌다. 10만만 관중이라는 목표에 비가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KIA는 지난 13일 LG와의 홈경기에서 역대 최다 관중 기록 경신을 기대했었다. 12일 경기에 1만9446명이 찾으면서 올 시즌 누적 관중은 75만9558명, 타이거즈

역대 최다 관중은 지난해 기록된 77만 3499명이다. 이날 1만3941명이 입장하면 역대 관중 타이 기록이 작성되는 것이었다. 사전 예매된 표만 1만 장이 넘었기 때문에 최다 관중 기록 경신이 이뤄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비로 역대 최다 관중 기록 달성을 15일로 미뤄야 했다. 여기에 주말 투수가 비에 사라지면서 흥행 면에서는 아쉬운 비가 됐다. 팬들도 비가 덜었지만은 않다. 휴가철을 맞아 챔피언스필드 나들이에 나선 타지역 KIA 팬들이 아슬아슬 발길을 돌리거나 예측 불허의 날씨 때문에 관람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번 주말에도 비예보가 있는 등 예상할 수 없는 날씨는 계속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은퇴 앞둔 NC 이호준 광주서 마지막 경기

“야구, 뜻대로 안되더라”

해태서 투수로 시작... 타자 전향 후 1997년 KS 우승
“최고의 컨디션으로 마무리 야구에 대한 예의 지킬 것”

“무등경기장 마운드에 처음 올랐던 기억도 나고...”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하는 NC 다이노스의 이호준이 광주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 소회를 밝혔다. 15일 KIA와 시즌 13차전을 치른 NC는 16일 경기를 끝으로 2017시즌 광주 원정경기를 마무리한다. 이호준에게 광주는 야구를 처음 시작하고, 프로 선수로서의 첫걸음을 뚫고 향이다. 광주중앙초에서 야구를 시작해 총창중-광주일고를 거친 이호준은 1994년 해태 타이거즈 선수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에는 투수 이호준이었다. 투수로서의 성적은 좋지 못했다. 신인 이었던 1994년 8경기에 나와 12.1이닝 동안 16안타(7피홈런) 9사구 4탈삼진 14실점을 하며 10.22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이후 1996년 타자로 전향한 그는 1997년에는 대타 자원으로 한국시리즈 무대를 밟아 우승 멤버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호준은 15일 KIA와의 경기를 앞두고 “슬프지는 않은데 광주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서 열심히 맞던 기억도 나고(웃음). 광주에서 시작해 마지막을 광주에서 보내

고 싶다는 생각도 했는데 뜻대로는 안되더라”며 “야구 시작할 때 27번을 달고 있었는데 마지막에도 27번을 달고 뛰게 됐다”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그는 특유의 입담으로 은퇴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이호준은 “SK와 두산과의 경기에서 생각지도 못한 행사를 해줘서 놀라기도 하고 울컥도 했다. 내가 못 살지는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웃음)”며 “원래 영화를 보거나 그러면서 잘 있는데 야구를 하면서 울지는 않았다. 은퇴식에서도 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아버지께서 우실까 봐 은퇴식에 못 오시겠다고 하더라. 그렇게 하시면 다시는 안보는 거로 이야기 정리했다”는 농담을 하며 야구 인생 마지막 여정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야구에 대한 예의를 갖추겠다는 언급도 했다. 이호준은 “안타를 치든 못 치든 최고의 컨디션으로 마무리하고 경기를 하고 싶다. 그게 야구에 대한 예의”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호준은 자신의 이야기대로 이날 7번 지명타자로 나와 3회 첫 타석에서 KIA 선발 양현종을 상대로 좌월 솔로포를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

한국농구, 광복절에 일본 완파



15일 새벽(한국시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열린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한국과 일본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왼쪽은 허재 감독. 한국 남자 농구대표팀은 광복절 새벽 펼쳐진 이날 경기에서 일본을 13점차로 완파하고 8강 진출에 성공했다. <대한민국농구협회 제공=연합뉴스>

아시아컵 8강 진출

한국 남자 농구대표팀이 광복절 새벽 펼쳐진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한일전에서 일본을 완파하고 8강 진출에 성공했다. 허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5일 새벽(한국시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열린 일본과의 8강 진출 결정전에서 81-68로 승리했다. 4쿼터 들어 연이어 터진 3점포가 승부를 갈랐다. 조별리그를 C조 3위로 마친 한국과 D조 2위 일본은 아시아컵 8강행 티켓과 더불어 양국의 자존심까지 건 이날 경기에서 시종 일관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 1쿼터 시작 후 김중규(LG)와 오세근(KGC인삼공사)의 2점슛으로 4-3으로 먼저 앞서간 한국은 이후 4분여간 한 점도 성공하지 못한 채 일본에 10점을 내주고 4-13 9점 차로 끌려갔다. 그러나 이후 오세근의 연속 득점과 전준범(모비스), 김선형(SK)의 연속 3점포에 힘입어 경기를 뒤집은 후 17-15로 1쿼터를 마쳤다. 2쿼터 들어서는 1~2점 차의 엇지러워 치라 승부가 이어졌다. 3분을 남기고 한국 37-31, 6점 차로 앞서가기도 했으나 일본 다나카 다이키의 3점슛을 시작으로 일본에 4번 연속 골을 허용하며 37-41로 역전을 당했고 이후 오세근이 2점을 따라가 39-41로 전반이 끝났다. 3쿼터에서도 역전과 재역전이 반복됐다. 골밑슛과 외곽슛이 모두 안 터지면서 3쿼터 3분을 남기고 49-56 7점 차 리드를 당했지만 이준현(모비스)의 연속 득점에 이어 김선형의 레이업슛과 추가 자유투로 57-56, 1점을 앞선 채 4쿼터로 들어갔다. 4쿼터 흐름을 우리 쪽으로 가져온 공신은 허웅(상무)이었다. 허웅은 4쿼터 초반 3점슛 2개를 연속으로 성공하며 점수 차를 63-57로 벌려놓았다. 이어 김선형이 2개 연속 3점 슛을 꽂아 넣는 등 한국은 4쿼터 5분 동안 일본의 득점을 1점으로 묶은 채 15점을 쏟아내 점수 차는 15점으로 벌어졌다. 일본은 추격에 나섰다만 역부족이었고, 1분 20여 초를 남기고 김중규가 덩크슛까지 성공하며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이날 김선형이 3점슛 3개를 포함해 16점을 성공했고, 오세근도 16점을 뽑아냈다. 대표팀은 오는 17일 B조 1위 필리핀과 준준결승에서 맞붙는다. /연합뉴스

생활체육수영대회 9월 광주서 개최

수영 동호인들을 위한 생활체육수영대회가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체육회는 오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광주 광산구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에서 '2017 빛고을 전국마스터스수영대회(이하 마스터즈대회)'를 개최한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대비해 지역 수영 붐 조성의 일환으로 열리는 마스터즈 대회는 전문선수 아닌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전국의 많은 수영 동호인들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는 초등부(1~6학년)와 성인부(연령별·20대~60대이상)로 나뉘며, 자유형 50m 등 초등부 그룹별 28개·일반부 그룹별 111개로 개인경기와 단체경기가 진행된다. 시체육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2019년에 있을 국제대회와 관련한 운영방식 등

을 점검할 계획이다. 남부대 국제수영장을 활용해 수영장내 사무실 운영, 각종 전자 집기류 사용, 개보수 여부 파악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체육회는 2019수영대회를 알리는 대회인 만큼 광주수영연맹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회 준비 및 홍보에 전념할 계획이다. 특히 관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마스터즈대회 관련 참가요강은 광주시수영연맹 홈페이지(http://cafe.naver.com/gwangjuswim)에서 확인하면 된다. 참가신청은 14일부터 25일(오후 6시)까지 E-mail(gjswim2017@hanmail.net)로 하면 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